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	이름	박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애버딘 in south Dakota
파견대학	Norther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9-8 ~ 2020-5
귀국여부	귀국(4월초 코로나영향으로)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는 애버딘(상당히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거리량은 도보로 10분정도 차이가 나며 다운타운에는 음식점, 카페, 마트가 있으며 좀 더 나가시면 맥도날드, 버거킹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국 도시라이프를 즐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 않지만 시골느낌을 원하며 그 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추천 드립니다. 학교 규모 사이즈는 순천향대학교 사이즈 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평지에 있으며 건물이 다 높지 않습니다. 봄학기보다는 가을학기가 날씨가 매우 좋고 완벽한 날씨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학교 주변 공원에서 피크닉도 즐기고 자전거 타고 동네구경도 자주 갔습니다. 1학기 내내 좋은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10월초에 폭설이 한번 왔었고 계속 날씨가 좋다가 11월말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전체 교수진들은 너무 친절하고 잘 대해 주셨고, 특히 역사를 들으실 분들은 디아즈교수님 것을 듣길 추천 드립니다. 한국인들을 매우 좋아하시고 한국음식을 좋아하시니 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2019-2학기 수업	United states history 2 - 완벽한 수업이며 재밌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업입니다. 중간기말고사 한번과 중간에 레포트 하나 쓰는 것으로 진행되며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Socio-cultural theory - 매주 퀴즈가 있으며 과제가 좀 부담스럽게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교수님이 그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인상깊고 도움이 많이 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ntroduction to sociology- 캐나다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데 중간고사 전까지는 너무 완벽한 수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테드, 유튜브 등 영상 수업이 많다 보니 지루하고 상당히 별로였던 수업으로 기억합니다. General psychology - 2시간정도 수업이면 30분은 영상으로 때우시고

	30분은 피피티 계속 읽기만 하시고 끝나는 수업이며 휴강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공부에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i>Class instruction – guitar</i> – 저는 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언제 배우겠냐 싶어 신청했는데 기타도 대여해주며 엄청 재밌는 수업이며 시험이 없고 마지막 기말고사로 주변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연주를 했습니다.
2020-1학기 수업	<i>Intro international relations</i> – 교수님이 스타워즈 광팬이신지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데 스타워즈 영상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읽을 자료가 상당히 많지만 이 분야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하는 만큼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International law-organization</i> – 이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마지막수업이라고 하셔서 다음에 같은 수업을 들을 시 다른 교수님이 담당하실 것 같고,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신이 없어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i>Ceramics 1-</i> 교수님은 상당히 친절하시며 도자기 수업을 언제 들겠냐 싶어 신청하였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뜻 깊으며 만든 도자기를 자신이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니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i>History of Russia under Tsars-</i> 수업할 때마다 ~~스키가 3명씩나와 헛갈립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심오하지 않고 기본적인 역사 훑기 정도의 수업이니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운영	일단 스테이시라는 분이 국제교류처 담당자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외국에 있을 때 여러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분을 찾아가세요. 또한 가을학기에는 날씨도 좋고 하여 상당히 야외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봄학기는 상당히 춥고 행사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다른학교와 달리 순천향대는 무조건 1년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스트패밀리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수도 있고 학교에서 매칭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점을 이용하시면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미국 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과 전혀 반대로 미세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시골 날씨입니다. 가을학기에는 하늘 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늘이 이쁩니다. 정확히 달로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8월~9월은 길을 장시간 걸어다니면 땀이 날 정도 입니다. 10월초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눈이 다 녹을정도로 날씨가 좋았고 11월 말까지는 정말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온도로는 8도에서 16도 사이이며 맨투맨이나 긴팔 정도로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날씨부터는 상당히 춥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패딩이나 털잠바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날씨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의 코 안이 열고 속눈썹이 얼정도로 춥습니다. 하지만 롱패딩정도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날씨입니다(다른 해에 비해 이번해가 상당히 따듯했다는 점 참고하세요). 3월부터는 완벽한 날씨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춥고 눈이 다 녹지 않습니다. 4월, 5월 날씨는 11월 초 날씨만큼 완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4월초에 귀국하여 정확한 정보를 못드렸습니다.
안전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외부와의 접촉도 덜하며 주변사람들과 잘지내기만 한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애버딘도 미국이라 총기 소지가 가능하며 제가 있는 동안 두 번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다 미국인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즐기되 서로가 불편한 행동을 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기에 걸리신다면 미국약국이나 c스토어에 파는 초록색 액체 약품을 드시면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완치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치료는 근처 병원에서 진행되며 새벽에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RA를 깨워 함께하십시오. 앰블런스 타시면 정말 엄청난 비용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일단 교환학생으로 가면 무조건 학교기숙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기숙사 비용을 내고 본인이 외부 숙소를 따로 잡아 사는 것을 컨트롤하진 않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겠죠. 학교 기숙사는 울브스, 브리스코, 이스트, 웨스트, 크래머, 맥웰시가 있습니다. 전체 기숙사에는 냉장고와 요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맥웰시에서 살았고, 맥웰시는 가장가격이 싼 곳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글로벌빌리지 수준이지만 글로벌 빌리지보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왜냐면 공용 화장실이나 실내 청소를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브리스코는 학성사, 이스트와 웨스트는 향설 2관 수준, 울브스는 향설1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차이도 있죠. 정확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Ck3uSdQxrSY 참고하세요!

식사	교환학생은 무조건 밀플랜을 해야합니다. 거기서는 all flex라고 하는 1400달러정도되는 밀플랜을 하라고 강요아닌 강요가 있지만 본인 바꾸고자 하면 바꿔줍니다. 이것은 1주일정도 자신이 사용해보고 바꿔주기도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교통은 아예 없습니다. 호스트패밀리 차를 빌려타던 차가 있는 친구를 사겨 빌려타던 학교나 교회에서 주말마다 월마트 등을 데려다 주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교통의 전부입니다. 우버나 리프트(우리나라 택시개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로 25분정도 타고 가면 월마트를 갈 수 있으며 캐슬러(마트)나 다운타운은 자전거로 5~10분이면 충분하니 자전거 구입도 추천드립니다. 가을학기 초반에 자전거 중고매매업자가 오셔서 30달러 수준의 자전거를 판매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가는 비용: 140, 오는 비용 120	가는 비용은 참고하셔야 할 것이 저는 캐나다에 2달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또한 오는비용은 프리미엄(두번째 높은단계)로 산 가격입니다.
Fees	순천향대 학비를 내면 학비 낼 것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다른학교와 달리 우리학교는 18학점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할 것은 기숙사비, 밀플랜비, 보험비 정도가 다입니다. 하지만 국제학생 프로그램이나 예체능 계열 수업은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60달러 ~150 달러 내외	다른학교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싼 비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3500달러(기숙사, 밀플랜)만 내고 다녔고 다른한국학교 학생들은 6000달러정도 냅니다.
보험료	1년치 해서 130만원정도 낸 것 같습니다.	
숙소	기숙사 1800달러정도	혼자 살면 2300달러정도
식비	900달러 ~ 1500달러	본인이 선택가능
교통비	본인이 쓰는 만큼	우버, 리프트 9~12달러 월마트까지
책값	수업 오티때 눈치를 보고 구매하세요	책을 아예 안쓰는 수업도 있습니다

기타1	140달러(왕복버스), 550달러정도(편도리프트)	미네아폴리스라고 차로 대도시까지 5시간정도 걸립니다. 버스로는 12시간도 걸립니다.
기타2	애버딘공항 10달러	새벽에 타면 30달러도 부릅니다. 애버딘공항은 낮에 한번 새벽에 한번, 총 두번만 비행기가 뜨는 작은 공항인 점 참고하세요.
합계	한학기당 10,000달러면 넉넉할 것입니다.	순수 학교생활만 말씀드린 것이며, 여행 쇼핑 등은 미포함입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비자, 여권(만료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웬만한 것이 미국에서 다 팝니다. 1년 갔다와
느낀 것이지만 한국 음식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김치, 반찬, 햇반, 등 여러가지 다 파니 너무 무리해서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성학우라면 화장품 정도만 넉넉히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옷도 여러가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어차피 학교라이프라 사람들이 진짜 입던 옷만 입고
다니며, 여행갈 때 입고 갈 이쁜 옷들 몇 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짐을
적게 가져가야 돌아올 때 미국에서 산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니깐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미네아폴리스, 산티에고, 엘에이,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덴버, 록키산맥, 뉴욕,
시카고, 올란도, 토론토, 나이아가라, 옐로우 스톤, 배드랜드)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생활도 즐기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절대평가라서 학업스트레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를
공유하고 많은 미국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고 옐로우 스톤(큰바위얼굴), 배드랜드,
미네아폴리스 등은 학교측에서 차를 제공하면서 여행도 시켜주니 한 번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스타일분들은 비추합니다. 시골이며 밤하늘에 별이
빼곡할정도 많은 공기 좋은 시골이니 이 점 참고하세요.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으시면 plo94@naver.com에 이메일 남기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맥웰시 기숙사 혼자쓰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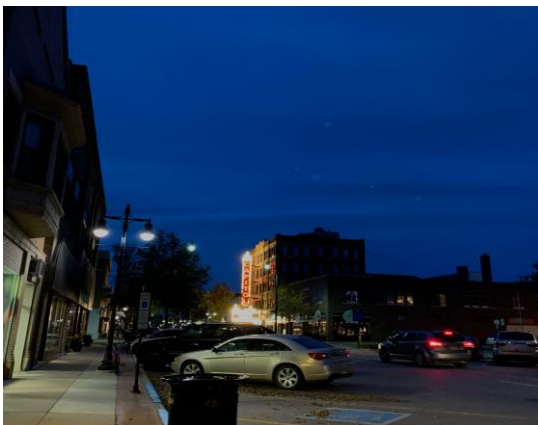
설날,추석이벤트



가을학기 날씨 좋은 풍경(학교 뒤)



봄학기 날씨 좋은 풍경(학교 내)



학교 근처 다운타운



학교 통해 여행간 옐로우 스톤